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 5.0% 인상...월환산액 201만58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 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5.1%)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천530원(인상률 16.4%),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9%), 작년 8천720원(1.5%), 올해 9천160원(5.1%)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 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의 한 적은 없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 역할도 한다.

국세청, 13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2조원 지급

국세청이 8월 지급 예정인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28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달 지급규모는 135만 가구에 1조2000억원이다. 코로나19와 고물가로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법정지급 시기를 두 달 앞당겨 지급한다.

원래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총 규모는 184만 가구, 지급액은 2조256억원이지만, 앞선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상반기분 4421억원, 올해 4월 하반기 조기지급액

3792억원을 뺀 나머지를 이번에 지급한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가구당 지급액의 경우 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는 100만원, 근로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가구는 227만원을 받는다.

반기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202만 가구 중 18만 가구는 기준보다 재산이나 소득이 많아 지급에서 제외됐다.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전년도에 비해 지급대상 소득기준이 200만원씩 올라 받는 사람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계좌입금 신청한 경우 오늘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 수령 신청 가구는 우편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으로 연락하면 된다.

오늘부터 1분기 손실보상 신청... 신속보상 확정 63만곳 대상

올해 1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이 오늘부터 개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 가운데 수령액이 확정된 63만개를 대상으로 우선 신청을 받는다.

신청 첫 10일간은 혼잡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적용되는데,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0 혹은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의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이 중 신속보상 대상은 정부가 행정자료로 보상을 미리 산정해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 즉시 지급받는다.

중기부가 확정된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신속보상 대상 사업체의 51.8%는 하한액인 100만원을 받는다. 상한액인 1억원을 받는 업체는 952곳으로 0.2% 수준이다.